

종합·해설

17대 대선 D-365 5대 변수

'대한민국호(號)'의 항로를 결정할 17대 대통령 선거전이 19일부터 365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지난 1997년 여야간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뤄낸 진보 세력이 장기집권체제로 돌입할 지, 아니면 철저부심하던 보수세력이 10년만에 정권을 되찾을 지가 내년 12월 19일이면 결정되는 것이다.

특히 내년 대선으로부터 불과 4개월 후 18대 총선이 예정돼 있고, 대선에서 승리한 정치세력은 집권초세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높은 기대와 지지에 힘입어 내전김에 의해 내수세력까지 확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과거 어느 때보다 치열한 선거전이 예상된다.

17대 대선의 최대 이슈는 경제와 안보가 될 것이라는 데 정치권 안팎의 관측이 일치한다. 1년 앞으로 다가온 대선의 주요 변수를 점검해본다.

2007년 대선 주요 일정

- ▲4월 23일 대통령 선거 출마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제한된 범위내에서 선거운동 가능
- ▲8월 22일~11월 26일(대선 후보자 등록 마감일) 언론기관 대선 후보자 초청 대담 토론회 가능
- ▲9월 1일~12월 18일(선거일 전일) 정당의 정책 방송 연설회 가능
- ▲9월 20일~12월 18일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 토론회 개최
- ▲11월 25~26일 대통령 선거 후보자 등록
- ▲11월 27일~12월 18일 각 대선 후보 선거 운동 시작
- ▲12월 19일 제 17대 대통령 선거



한-우크라이나 정상 의장대 사열

노무현 대통령과 빅토르 유센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합신당 서명 마무리...광주·전남지역 與 의원들 성향은

통합 신당-양형일 염동연 김태홍 유선호 김성곤 우윤근 주승용 손건 신당-김동철 지병문 당 사수파-강기정 서갑원 이영호 입장 유보-정동채

전당대회에서 발전적 당 해체와 통합신당 수임기구 구성을 주장하는 통합신당파의 서명 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정계개편 방향과 관련, 광주·전남지역 여당 의원들의 성향이 어느 정도 드러났다.

광주·전남지역 여당 의원들은 대체로 통합신당이 불가피하다는 행보를 보였으나 일부 의원들은 당 사수파 입장을 보이면서도 지역 여론을 감안, 확실한 입장 표명은 유보하고 있다.

18일 회망 21, 안개모, 국민의 길, 실사구시 등 신당파 의원 모임이 주도한 발전적 당 해체를 주장하는 방안안에 서명한 광주·전남지역 여당 의원들은 13명 중 절반이 넘는 7명

으로 집계됐다.

광주에서는 양형일, 염동연, 김태홍 의원 등이 서명에 참여했으며 전남에서는 유선호, 김성곤, 우윤근, 주승용 의원 등이 서명했다.

김동철, 지병문 의원 등은 당내 합

의에 의해 전당대회를 치른 후 당의 진로를 결정하자는 중도파의 중재안에 서명, 통합신당에는 찬성하지만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강기정, 서갑원, 이영호

의원 등은 신당파와 중도파의 서명에 참여하지 않아 일단 당 사수 쪽에 치우쳐 있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당 사수파의 모임에도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어 통합신당이 우세한 지역 여론을 감안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바다이야기' 파문으로 정치 현안에 물러서 있는 정동채 의원은 정계개편 방향과 관련,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정계개편 방향과 관련된 광주·전남지역 여당 의원들의 성향은 강경 신당파가 7명, 온건 신당파가 2명, 당 사수파가 3명, 입장 유보 1명 등으로 분석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① 盧心の 향방

과거 대선 때마다 혐적 대통령의 '뜻'이 어느 후보로 기우느냐, 탈당을 결행하느냐 등이 선거의 향방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쳐왔다.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이 어떤 형태와 방식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지는 대권발정식의 또 다른 변수로 꼽히고 있다.

있는 부분은 범여권 정계개편의 방향과 재공여부,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실시과정에서 영향력 행사 여부, 우리당 탈당 여부 등이다.

노 대통령은 최근 통합신당 논의가 수면위로 부상하자, 자신의 분명한 입장 개진을 통해 당내 논의에 깊숙

당내 논의 깊숙이 개입 우리당 탈당 여부 촉각

이 개입하기 시작했다. 지난달 30일 "신당은 지역당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규정하며, 통합신당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피력했고, 당 지도부가 추진한 당 진로 설문조사에도 반대 입장을 확고히 표명했다. 탈당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② 범여권 정계개편

대선을 1년 앞둔 여권은 내부에서 '핵분열'과 '통합'의 두 흐름이 서로 맞물리고 뒤엉키면서 '빅뱅(대폭발)'이 임박한 듯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다.

리당과 민주당, 고건 전 총리 진영, 시민사회세력 등 반(反)한나라당 세력들을 하나의 울타리로 묶어내자는 게 통합론의 '밈그림'이다.

그러나 통합으로 향하는 '과정'은 예측불허의 혼미국면이다. 다만 여권 내에서 거론되는 가장 현실성 있는 '경우의 수'로는 여권의 '핵분열'에 따

예측불허의 혼미 국면 속 고건발 개편론 가장 유력

른 통합론이 꼽힌다. 당진로를 둘러싼 전면전에 돌입한 통합신당파와 친노세력이 정면 충돌해 쪼개지는 경우다. 여당 밖으로 눈을 돌리면 '고건발(發) 정계개편'이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로 떠오른다. 민주당발 통합론 역시 무시 못할 카드다.

③ 한 '빅3+α' 구도

한나라당에 있어 내년 대선은 '10년만의 정권탈환'이나, 아니면 '삼진아웃'이나를 관가름하는 분기점이 된다. 현재 박근혜 전 대표와 이명박 전 서울시장, 손학규 전 경기지사의 이른바 '빅 3'에다 원희룡 전 최고위원이 가세, 4자대결 구도를 이루고 있다.

여기에 이회창 전 총재가 정계복귀 수순을 밟는 듯한 행보를 보이면서 경선출마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현재로서는 새로운 주자들이 계속 가세하더라도 박 전 대표와 이 전 시장의 양대구도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특히 과연 두 사람이 경선결과에

이회창 경선 출마 관심 '오픈 프라이머리' 주목

관계없이 끝까지 한나라당에 남아 대선을 치러낼 것이냐가 관심사다. 여기에 열린우리당이 대선레이스의 반전을 노리며 당론으로 채택한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 제도가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어 어떤 효과를 낼 지 주목된다.

④ 경제살리기 경쟁

한국경제는 지난 하반기 들어 하강국면에 진입했다. 내년에도 부동산가격 불안, 가계부채 부담, 북핵 리스크, 환율과 유가 불안 등으로 안팎의 경제 여건은 불투명하기만 하다. 지난 10월 초 실시된 한 일간지의 조사에서도 내년 대선의 최대 이슈로 응답자의 73.9%가 '경제 회복 및

활성화'라고 답했다. 하지만 대선정국이 본격화하면 ▲경제리더십 실종으로 경제정책이 표류하고 ▲정당과 대선 후보들이 인기 영합적인 경제정책을 남발하며 ▲기업들은 투자를 꺼리고 경제관료들도 복지부동하는 상황이 빚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경제전문가들은 대선정국에 들어

경제 희생이 최대 이슈 정책 일관성 유지 중요

서면서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져 소비와 투자가 침체되고 경기하강이 가속화할 수 있는 만큼 무엇보다 정책의 일관성 유지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대선주자들도 지지계층만 인식한 정책대안 보다는 국가경제 전체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⑤ 北風 다시 부나

2002년 대선에 이어 외교안보 이슈가 이번 대선에서도 이슈로 부상할 것인가? 북한의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외교·안보 문제가 경제 문제를 능가할 쟁점으로는 떠오르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많지만, 한미동맹과 대북정책 등을 두고 뜨거운 논란을 벌였던

2002년 처럼 외교·안보 이슈가 적지 않은 쟁점으로 떠오를 것이라는 분석도 여전히 나오고 있다. 안보가 경제와 연결되고 리더십, 위기관리 능력의 문제로 직결될 수 있다는 관점에 서다. 대선에서 외교·안보문제가 어느 정도 이슈화가 될 것인지는 북한의

남북정상회담 파급력은? 북한 선거개입 시도 예상

움직임과도 관련돼 있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일단 북한이 이번에도 어떤 식으로든 한국의 선거에 개입을 시도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파급력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나 남북정상회담을 전격 수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광주대학교
정시가/나/다군 신입생 모집일정

- 일반교부 - 2006. 12. 17(화) - 27(수)
- 공서철우 - 인터넷: 2006. 12. 21(금) - 27(수) 12:00 - 24:00 / 우편: 2006. 12. 28(금) - 11(수) 17:00

2007년도 편입생 모집: 일반교부(2007. 1. 31일) / 공서철우(2007. 1. 31일)